

## 기술·가정교과 의생활 영역에 대한 여고생들의 학습 요구<sup>1)</sup>

조 은 영

대구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강사

### Learning Requirement of Girl Students in High School for Clothing and Textile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Cho, Eun-Young

*Dept. Practical Arts Education Instruct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composition of theories and practical activities in clothing and textile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find out learning requirement of students in the area.

For this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with 280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Daegu and the rate of response was 7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fter analysing the curriculum of Practical Arts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and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in secondary school, we could find out that more emphasis is put on practical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On the other hand, theorie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middle school.

2. Students have similar preference both for theories and for practical activities as a way of learning in class and show positive responses to practical activities unless they're giving too much pressure as a part of performance test.

3. According to their learning requirement, several teaching-learning contents in clothing and textile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are selected such as materials, clothes designs, how to get dressed well, how to make a reasonable purchase on clothes, and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various clothes, etc.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learning opportunity to the extent where even the students who haven't chosen the selected-advanced course can take part in class actively.

주제어(Key Words) : 학습 요구(learning requirement), 교수-학습(teaching-learning), 수행평가(performance test), 실기(practical activities)

1) 교신저자 : Jo Un-young, 206/509 Bo-seong apartment, Pal-kong 2cha, 327 Jimyo dong, dong-gu, Daegu, Korea  
Tel : 053-983-0820 E-mail : choeunim@hanmail.ne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요자 중심 교육 혹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명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 전개가 교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학교의 요구나 실정, 교육자의 재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수 내용을 분석,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학습요구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 과제라고 판단한다. 물론,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교수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교수가 판단하는 교육적 요구를 잘 조화시켜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가정 교과서의 내용구성 측면을 보면,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대부분 내용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즉 실습활동의 제시가 이론이나 내용제시의 한 부분으로 끼워 맞추는 형식을 갖는다면 활동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론이나 내용도 활동의 방편이 되어야 하고 활동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이춘식, 2001). 이러한 관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편찬된 교과서의 경우, 전반적으로 단순 암기보다는 탐구학습의 형식을 빌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탐구 과제나 수행과제를 통하여 학습 결과를 관찰함은 물론 개별학습과 발전학습의 일면을 추구하고 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가정영역의 내용은 가정 생활의 설계와 가정 생활의 실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의생활영역은 가정 생활의 실제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옷감을 이용하여 커튼, 식탁보, 쿠션, 전통 조각보 등의 생활 용품을 만들고 심화학습과 탐구과제에서 반바지 등과 같은 간단한 의복 제작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가정 단위수(3단위/1년)와 교과서 내용을 고려하면, 의생활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은 당연히 실기 위주로 기

울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고등학교 1학년 가정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심화선택교과로 가정과학을 선택하는 학습자와 선택하지 않는 학습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차이를 두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먼저 7차 교육과정의 실과 및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영역을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 가정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살펴 이에 가장 적절한 교수-학습내용 구성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 요구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려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 및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영역을 분석한다.

둘째,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을 살펴본다.

셋째, 여고생의 의복 구매 행동과 그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본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에 따라 의생활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1.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의미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돈희(1998)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학습자의 잠재력과 가능성, 성장의 배경과 전망, 예상되는 삶의 세계에 비추어 제공되는 교육이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의 초점을 학습자의 능력, 배경, 현재와 미래의 삶에 두려는 것으로 보았다. McCombs와 Whisler는 진정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란 개별 학습자의 유전적 특성, 경험적 배경과 개인적 요구 등을 학습원리 및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활동이라는 것이다(양용철, 2000에서 재인용).

최근 권낙원(2000)의 학습자중심 교육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사는 지식전달자, 지시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학습자는 지식수용자, 수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수업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내용을 선정·조직하며 교사의 입장에서 학습자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일임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체제를 따르게 된다.

2) 개별화 수업을 지향하는 교육이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급세기의 지배적 교육사조였던 자극-반응이론에 근거하여 수업을 개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열린교육에서 개별화란 개별아동들이 자신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책임은 개별아동들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미리 정확하게 결정하는데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아동들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관심있는 것을 탐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3) 학습자의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자기주도 개별화 수업이 성공적이라면 우선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은 교사에 의하여 구성될 수도 있으나 학습자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경험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국 자신의 학습을 위해서는 주어진 환경자원을 최대한 선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 교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부모, 지역 인사의 도움도 요청할 수가 있다.

4) 학습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이다.

학습자의 능력이나 인격에 대한 신뢰는 곧 학습자의 능력을 계발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학습자중심 교육의 기본은 무엇보다 학습자에 대한 신뢰에 있다. 학습자를 신뢰하게 되면 학습자도 교사의 기대를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에 맞추어 행동하게 되며 결국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해 나갈 것이다.

5) 교사와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이다.

학습자중심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

므로 교사중심 교육의 경우보다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학습활동의 계획에서 시작하여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교사는 늘 학습자의 학습을 주시하고 학습에서 느끼는 곤란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지를 관찰하고, 학습자가 학습과제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해 오면 언제든지 이에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6) 내용과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학습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형태의 학습경험을 각기 분절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관련짓고 조화롭게 하여 전체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7) 방법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학습자중심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발견 또는 탐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견 또는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기능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주어진 주제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지식 및 지식이 배제된 상태 하에서의 과제 탐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나의 학습과제를 탐구해 나갈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목표달성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수업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생긴다.

8) 학습자중심 교육은 인간의 자연적 심리발달과 정과 일치하며 평생교육으로 이어진다.

학습의 경우 처음에는 부모나 교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학습을 수행해 나가다 점차로 교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가 주체가 되어 학습을 수행해 나간다. 그러나 교육이란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한 많은 지식, 기능을 충당할 수는 없다. 산업화,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지식, 기술이 탄생되어 이것은 사회의 여러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평생동안 배워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학습자중심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권낙원, 2000).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학습자중심 교수·학습의 핵심은 학습자와 학습과정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교육의 실제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중심 교수·학습의 설계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에서 의생활영역에 대한 연구

과거 국민생활 수준이 낮았던 시대에는 무엇보다 식생활에 관련된 영역의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서 근대에는 개성있고 건강하지 인생을 즐기자는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의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는 크게 인간의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영역과 가족관계, 가정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가정교과 내용을 기술교과와 통합하여 기술·가정교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자기주도 학습과 개별화 수업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 평가와 같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주도히 나가야 함은 물론 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매체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선택·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평가 중에서 수행평가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가정교과에서도 행해져 오고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열린교육, 학습자중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가정교과의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도 가정교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구영순(1997)은 협동학습을 적용한 가정과 수업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수현(1997)은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영역의 협동학습지도안 개발에 대한 연구의 경우, 가정교과 중 가족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협동학습에 의한 수업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고 연구자들은 의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협동학습을 적용한 지도안을 개발하였다(심은희·손원교, 2001). 기술·가정 교과의 수준별 모둠수업 사례연구에 대한 조필교·김기경의 연구(2000)에 의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 뿐만 아니라 기술·가정교과와 같은 기타 교과에서도 수준별 모둠수업이 흥미있고 활발한 수업을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장현숙·이옥이(2000)는 중학생의 영양 교육에 수준별 분단 수업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의생활교육의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모형 적용이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정미경(2001)은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모형을 의생활 수업

에 적용하였을 때 창의성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 및 초등학교에서의 창의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의생활 수업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경화·이혜영(2002)은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의복구성분야 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 제6차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서가 대상이긴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난이도 수준의 가정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피교육자로 고려한 새로운 교과내용의 개발의 필요에 대하여서도 역설하였다.

학습자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량을 줄이고 수준도 낮추어서 수업을 설계하려는 교사의 의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지식 중심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도가 높고 학습자들의 요구와 흥미를 최대한 반영하는 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길형석, 2001). 학습자중심의 교육은 학습자의 능력, 적성, 흥미, 자율성 등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교사의 주도적 교육 행위를 배격하거나 학습자에게 끌려 다니는 교육을 용인하지는 않는다.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학습의 자유는 교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길형석, 2001).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 중 의생활영역에 대한 여고생들의 학습요구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점에서 국민공통기초과목인 기술·가정 교과의 교수·학습과 심화선택교과인 가정과학 교과의 교수·학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 3. 청소년의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연구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의 발달로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며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높아져서 강한 경쟁심이 발달된다(김성태, 1984). 이화자(1994)는 10대를 포함한 신세대 의생활의 가장 큰 특징으로 패션이나 유행에 대한 민감함과 유명브랜드 의류의 선호를 들었다. 이들은 평소 장소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며, 옷을 구입할 때는 본인에게 어울리는가를 신중히 따지는 '자기표현 세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섬유저널(1995)에서 10대 슈퍼주니어의 의류구매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면, 이들은 품질과 디자인의 우수함과 유행 경향을 의류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으며, 구입 장소로는 각 브랜드의 대리점과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화(199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소비자는 영상세대로서 기능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면이 강한 소비취향을 가지고 있다. 심정은·고애란(1997)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의복과 외모에 관심이 높은 시기로 타인으로 부터의 인정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 의복을 과시적으로 착용하는 시기이다.

김나연·이기춘(2001)의 청소년 소비자의 동조적 상표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측면에서도 성별에 따른 동조성향수준의 차이를 이용하여 여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족과 친구가 대상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할 경우 좀더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수행하도록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또래 집단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김현숙·최선형(2002)은 Y세대의 힙합패션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힙합 매니아 요소는 행동변인과 태도변인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군집분석으로 Y세대 집단을 힙합 매니아 집단, 힙합 선호 집단, 힙합 무관심 집단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행동변인과 태도변인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구매 행동에 대한 특징 중 의복평가기준에 대해서, 또한 정보원과 의복 구매시 애교점포에 대해서 Y세대 집단에 따라 다르게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의류선물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지인·김용숙(2001)은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자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충동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이 강한 편의주의적 생활 경향이 높다. ② 쇼핑을 즐기며 신제품에 대한 관심과 선도적 구매 비율이 가장 높다. ③ 소비자 경험은 미숙하나 선물문화에 익숙하다. ④ 남학생 소비자들의 직접 구매행동 참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청소년기인 고등학생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큰 편이고 이들의 의복구매행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아직 정형화되지 않는 의복행동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심을 의생활영역의 학습에 전이시켜 학습 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의복구매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학습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적절한 의생활영역 교육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기술·가정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 연계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2002년 현재 대구지역 고등학생 중, 제7차 교육과정이 해당되는 학년인 1학년과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2학년의 교육과정에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예비 조사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1학년의 경우, 아직 의생활 단원을 학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학습된 경우라도 의생활영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간단하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생활 용품 만들기 위주로 학습되고 있는 상태여서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 가정교과시간에 광범위한 영역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 2. 조사도구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희망내용, 의복구매행동,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기타 등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희망내용과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설문문항은 대구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2002년 4월에서 5월에 32명에서 35명으로 구성된 4개 학급 2학년 학습자들의 토론을 통해 언급된 내용을 우선 선정한 후 이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던 문항은 '가장 공부하고 싶은 영역,'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등이다. 의복구매행동은 '옷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구입할 때 소재를 살펴보는 정도,' '소재를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 '소재를 살펴보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소재에 관한 구매현

〈표 1〉 실과, 기술·가정 의생활영역 교육내용

구분	대상	교육 내용	세부 항목
초등학교 실과 의생활영역 교육내용	5학년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 스킨자수 - 뜨개질 - 손바느질
	6학년	재봉틀 다루기	- 기초박기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중학교 기술·가정 의생활영역 교육내용	8학년	의복 마련과 관리	- 옷차림,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 옷 만들기과 재활용 - 옷의 손질과 보관
고등학교 기술·가정 의생활영역 교육내용	10학년	직물을 이용한 생활 용품 만들기	- 생활 용품 만들기의 기초 - 간단한 생활 용품 만들기

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 내용은 가정과목이나 의생활영역에 대한 선호도와 난이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응답 형태는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가장 근접한 한가지 항목에만 체크하도록 한 단순선택형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2002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였으며 108명의 예비 조사 응답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8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고, 총 263부(93.9%)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 항목의 일부분만을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221부(78.9%)였다. 본 자료는 SPSS 9.0 윈도우용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의생활영역 내용을 조사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

제7차 교육과정에서 편찬된 기술·가정교과가 남

학생과 여학생에게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국민공통기초과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6차 가정교과 내용에서 많은 변경이 불가피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과 달리 가정영역의 내용이 많이 축소·조정되어 있는데 의생활영역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지식이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생활 용품 만들기 위주의 실기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11, 12학년(고등학교 2, 3학년)에서 가정과학을 심화선택교과로 선택하게 되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영역에 관련된 이론 부분을 수업시간 중에 어느 정도로 언급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1).

초등학교에서는 실과를 5, 6학년에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5학년의 실과과목에서 의생활영역을 처음 접하게 되며 생활교과로서 만들기 위주의 노작활동으로 학습하게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실과 교과에서 손바느질의 용품과 재료를 익히고, 실제로 기초 손바느질을 하게 된다. 또한 스킨자수와 뜨개질의 종류를 익히게 되고 스킨자수로 방석만들기와 대바늘뜨기, 코바늘뜨기와 같은 노작활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재봉틀에 대해 이해한 후 재봉틀 다루기를 익히고 이어 주머니, 덧소매, 간단한 쿠션 등과 같은 생활 용품 만들기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 8학년 기술·가정과목에서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기

술·가정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보다 비교적 많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의 선수학습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깊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학습자들은 '옷차림'에 있어서는 의복의 기능, 기원, 의복의 재료에 대한 이해, 아름다운 옷차림, 나에게 어울리는 옷차림(디자인의 요소, 원리 포함), 옷입기(양복, 한복 포함)를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에 있어서는 '의복 마련 계획', '의복의 구입'을 학습하게 된다. '옷 만들기와 재활용'에서는 '파자만 만들기', '헌 옷으로 새 옷 만들기'를 노작활동으로 실습하게 된다. '옷의 손질과 보관'에 있어서는 '의복의 손질(얼룩빼기 포함)', '세탁의 실제', '세탁 후 처리', '다림질', '충해와 곰팡이 방지', '정돈과 보관'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위 내용은 친재교육을 참고로 한 것이며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의 내용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생활영역에 있어서 선수학습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중학생들에게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배당된 단위시간에 비해 광범위하게 서술되어있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생인 10학년의 기술·가정 교과서의 의생활영역에 있어서는 이론 영역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생활 용품 만들기 위주의 교육내용을 선정해 두고 있다. 물론, 7차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실천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실기 위주의 학습에 앞서 10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가정 교과 지도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을 참고로 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선정하는 것은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교수-학습의 선행작업이라고 사료된다.

2.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희망 내용

여고생들의 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희망 내용을 평가하고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한 조사결과가 <표 2>~<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2> 교과와 영역에 대한 선호도

항 목	가정교과		의생활영역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매우 좋아하는 편	5	2.3	18	8.1
좋아하는 편	67	30.3	93	42.1
그저 그렇다.	115	52.0	88	39.8
싫어하는 편	29	13.1	15	6.8
매우 싫어하는 편	5	2.3	7	3.2
Total	221	100.0	221	100.0

여고생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32.6%의 학습자가 '매우 좋아하거나 좋아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52.0%. '싫어하거나 매우 싫어한다' 학습자는 15.4%로 가정과목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전체의 약 1/2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가정교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가정과목의 여러 영역 중 의생활영역을 '좋아한다'는 학습자는 50.2%이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39.8%이었으며, '싫어한다'는 학습자는 10.0%로 전반적으로 의생활영역에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저 그렇게 생각하거나 싫어한다'고 응답한 49.8%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를 진작시키는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고생들의 가정교과와 의생활영역에 대해 느끼고 있는 난이도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면, 가정교과에 대해서는 '매우 쉽다'거나 '대체로 쉽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0.9%, 10.4%, '보통이다'가 62.0%, '대체로 어렵다'거나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23.5%, 3.2%로 가정교과를 그다지 쉽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생활영역에 대한 난이도에 있어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5.0%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35.8%로 의생활영역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학습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교과와 영역에 대한 난이도

항 목	가정교과		의생활 영역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매우 쉽다.	2	0.9	1	0.5
대체로 쉽다.	23	10.4	10	4.5
보통이다.	137	62.0	131	59.3
대체로 어렵다.	52	23.5	72	32.5
매우 어렵다.	7	3.2	7	3.2
Total	221	100.0	221	100.0

의생활영역에 대해 '이론과 실기수업에서 원하는 비중'과 '하고 싶은 실기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이론과 실기를 반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학습자의 의견이 30.8%이었고, 실기 위주에 이론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27.6%)이 이론 위주에 실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19.0%)보다 많았다. 따라서 교수자는 의생활영역의 수업 시간에 이해의 난이도가 높은 이론보다는 손동작을 통한 조작활동을 더 많이 계획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절하게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이론과 실기수업에서 원하는 비중

항 목	Frequency	Percent
주로 이론만	31	14.0
주로 실기만	19	8.6
이론과 실기가 반반	68	30.8
이론 위주에 실기 조금	42	19.0
실기 위주에 이론 조금	61	27.6
Total	221	100.0

〈표 5〉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실기내용

항 목	Frequency	Percent
의복 착용(코디네이션)	119	53.8
간단한 의복 제작	47	21.3
생활 소품 제작	50	22.6
기타	5	2.3
Total	221	100.0

또한 〈표 5〉에 의하면, 의생활 실습영역 중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실기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코디네이션' 영역을 53.8%의 학습자들이 원하였다. 멋진 옷차림에 대해 배워 의모를 더욱 돋보이고자 하는 여고생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진다. '간

단한 의복 제작'과 '생활 소품 제작'을 원하는 학습자도 각각 21.3%, 22.6%로 전체의 43.9%나 되었는데, 제작과 관련된 실기도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있었다.

〈표 6〉은 수행평가에 실기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 조사결과이다. 〈표 6〉에 의하면, 69.7% 정도의 학습자들은 결과를 반영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실제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가 실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평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의생활영역의 실기에 대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습자들이 바느질과 같은 실기를 귀찮아할 것이라는 교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입시 위주의 과열된 학습 분위기와 암기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오히려 여고생들은 부담없이 학습할 수 있는 의생활영역의 실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수업진행과정에서 심리적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자신이 직접 완성한 작품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진다.

〈표 6〉 수행평가에 실기 반영 찬반 여부

항 목	찬 성	반 대	Total
Frequency(Percent)	67(30.3)	154(69.7)	221(100.0)

또한 의생활영역에 대해 학습자들이 공부하고 싶은 내용과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를 〈표 7〉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7〉에 의하면, 여고생들은 '코디네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가장 공부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교복이나 학교 밖의 상황에서 입게 되는 의복의 착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제작과 관련된 실기뿐만 아니라 '코디네이션'과 '의복 디자인'에 대한 교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8학년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의복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은 여고생들에게 바람직하고 멋진 옷차림을 위한 코디네이션 내용에 대한 언급도 기술·가정 교과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진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기술·가정과 교수자들은 이러한 학습자들의 희망에 적합한 학습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수가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단순한 제작 내용을 일률적인 교수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



〈표 7〉 가장 공부하고 싶은 의생활내용(n=221)

내 용	Frequency	Percent	내 용	Frequency	Percent
코디네이션	160	72.4	의복의 소재	6	2.7
의복 제작 방법	37	16.7	의복의 생산 및 유통	5	2.3
의복의 착용법	11	5.0	의복의 구매 방법	2	0.9

〈표 8〉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생활내용

(n = 221)

내 용	Frequency	Percent	내 용	Frequency	Percent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	88	39.7	의복의 보관 방법	11	5.0
의복의 디자인	43	19.5	간단한 의복 제작	3	1.4
체형에 맞는 의복 착용	42	19.0	의복의 기원	1	0.5
의복의 재료와 성능	20	9.0	생활소품 제작	1	0.5
의복의 세탁 방법	12	5.4			

은 학습 수요자의 의욕을 진작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학습자들의 노작활동을 수행평가에 그대로 반영하여 학습자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식이 아니라, 학습 흥미를 높여주고 실기라는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창의성과 성취감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교수-학습내용 연구와 학습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8〉에 의하면, 여고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이었으며 다음으로 '의복의 디자인', '체형에 맞는 의복 착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의 재료와 성능'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자는 9.0%에 불과했다. 여고생들은 의생활영역에서 학습을 희망하는 내용과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있어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구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학습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코디네이션'에 대한 학습희망이 가장 많고 디자인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학습과 실제 생활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학습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구시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학습자들은 의생활영역에서 실기 위주로 그치지 말고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 '의복 디자인'과 '의복 착용 방법(코디네이션 포함)'에 대한 학습을 원하고 있었다. 실제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용에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공부하고 싶으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의복의 합리적인 선택과 착용'에 관련된 문제였고, '의복 제작'의 경우 공부하고 싶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가정교과에서 학습 내용으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성복의 풍요 속에서 의복을 선택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착용·사용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마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 3. 여고생의 의복구매행동과 그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

현대인의 의생활에 있어서 의복의 제작보다 의복의 구매는 실제 생활에서 훨씬 많이 소용되고 있는 부분 이므로 교수자가 생활에서 응용 가능한 교수-학습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여고생들의 의복구매행동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표 8)에 있어서도 대구지역 여학생들의 경우, 의생활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39.7%)'을 들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을 합리적으로 구입하고 선택하여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여고생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의 조

〈표 9〉 의복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n = 221)

항 목	Frequency	Percent	항 목	Frequency	Percent
디자인	143	64.7	옷감의 소재	3	1.4
가격	39	17.6	관리방법	0	0
다른 옷과의 조화	21	9.5	바느질	0	0
색상	10	4.5	기타	5	2.3

사결과를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9〉에 의하면, 의복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디자인'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 '다른 옷과의 조화', '색상' 등의 순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여고생들이 의복의 도구적인 측면보다 표현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복의 쾌적함과 같은 보건·위생적인 측면, 수명 등과 같이 의복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된 옷감의 소재를 언급한 학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는 의모를 중시하는 현대인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의 의복 소재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의복의 재료와 성능이나 의복의 세탁·보관 방법에 대한 특성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의복 착용과 실용적인 의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요인으로 의복을 구입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현재의 7차 교육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생활용품 만들기에 앞서, 교수자는 옷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옷감의 소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8학년(중학교)에서 본 내용이 다루어지므로 10학년(고등학교)에서는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의복을 구입할 때 소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한 교수자의 언급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한편, 학습자들의 의복 소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표 10, 표 11). 〈표 10〉과 〈표 11〉에 의하면, 실제로 의복의 소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학습자가 전체의 88.7%나 되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였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의복을 구매할 때 잘 살펴보지 않고 구매하는 이유로 24.4%의 학습자가 '살펴보아도 어차피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것에 마음이 끌려서 구매하게 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표 10〉 구입시 소재를 살펴보는 것

항 목	Frequency	Percent
중요하다.	196	88.7
그저 그렇다.	22	10.0
중요하지 않다.	3	1.3
Total	221	100.0

〈표 11〉 소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이유

항 목	Frequency	Percent
다른 것에 마음이 더 끌리기 때문	105	47.5
다른 것을 보느라 잊어 버리기 때문	55	24.9
살펴보아도 어차피 잘 모르기 때문	54	24.4
기타	7	3.2
Total	221	100.0

따라서 학습자들이 기술·가정 교과와 의생활영역에서 의복의 적절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자는 교수-학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8학년에서 소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의복구매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10학년에서 재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들의 의복구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의복의 착용과 관련하여 결국 쾌적함이 떨어지거나 보풀 등의 이유로 장기간의 착용을 저해하는 보건·위생성과 관리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도 10학년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소재에 대한 교수-학습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자원과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려된다.

#### 4. 학습자들의 학습희망내용에 따른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 내용

기술·가정교과는 인간의 다양한 생활의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지능의 계발에 기여하며 가정생활에서

〈표 12〉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안된 교수-학습 내용

의생활 내용	교수-학습 내용
의복의 소재*	· 실제 의복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섬유 소재의 특성을 다룬다.
체형에 맞는 의복의 착용방법	· 자신의 체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체형에 맞는 의복의 착용 방법을 이론적으로 다룬다.
의복의 디자인 (코디네이션 포함)	· 잡지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의복의 다양한 디자인에 대해 다루어 자신의 의복 착용에 응용할 수 있도록 다룬다. · 실기를 통한 코디네이션 방법을 다룬다. · 색 이미지, 다양한 코디네이션 방법을 잡지 등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룬다.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	·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통과정에 대해 다룬다. · 구입과 선택에 있어서 소재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다룬다.
의복 제작 과정	· 인터넷이나 멀티 자료를 이용하여 의복의 제작 과정을 다룬다.

주) \* 연구자의 조사 동기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첨가한 영역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통합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이다. 교과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7차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학습희망을 재확인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고려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사려되며, 따라서 이들 학습자들의 학습희망내용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더욱 적절하게 보강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학습 의욕을 진작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학습자들의 학습희망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12).

물론, 이렇게 선정된 교수-학습 내용을 전부 교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국민공통기초과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다만, 11학년이나 12학년(고등학교)에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습자들의 학습희망을 고려하고 또한 지역사회·단위 학교·교수자·학습자의 특성과 교육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수자가 학습 내용에 보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중요시되고, 교수자의 학습내용 선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수자의 교육 자율권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되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V. 결론 및 제언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무한한 학습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자유가 허용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거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패는 지나친 자유의 허용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도 학습 내용 선정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이 학습자의 요구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영역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희망을 파악하여 이후 심화선택교과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습자에 대하여 교수자의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 10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에 언급되지 못한 교수-학습내용 선정 및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가정 영역의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학습경험이 있는 2002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의 경우,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습득한 속도, 정확성, 안정성 등의 기능을 더욱 완성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생활 실습활동이 실려 있다.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의 의생활영역의 경우, 6차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이론과 실기를 비슷하게 배분하고 있었으며 전체 배당 시수에 비해 학습량이 과

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 영역의 이론 학습이 거의 심화선택교과인 가정과학에서 언급되고 기술·가정교과에서 의생활영역은 실기 위주의 학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 의생활영역에 대한 여고생들의 학습 요구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비교적 비슷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수행평가로 실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실기 수업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생활영역 중에서 학습하고 싶은 실기 내용으로는 '체형에 맞는 의복의 착용법', '코디네이션'과 '의복의 제작 방법' 등을 들었다. 이론 내용으로는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과 '의복의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따라서 가정과 교수자가 지역사회·단위 학교·교사·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정과 수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3. 대구지역 2학년 여고생의 경우 의생활영역의 학습이나 의복구매에 있어서 의복의 선택이나 착용과 관련된 외형적인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의복의 성능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여고생들의 경우 의복 선택에 있어 소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여 실제로 구입할 때에는 거의 고려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많았다. 따라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생활 용품 만들기에 앞서 옷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옷감의 소재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해 먼저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설문 응답을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희망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복의 소재', '체형에 맞는 의복의 착용 방법', '의복의 디자인',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 그리고 '의복의 제작 과정'이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 교수자는 심화선택교과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선택적으로, 최소한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술·가정 교과서의 의생활영역의 발전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자 한다.

1.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 학습자들의 학습희망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교수자의 교수-학습에 적용하면

학습자들의 기술·가정 교과 학습을 위한 동기유발과 학습 효과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 본 연구에서 선정된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은 연구자가 대구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지역 학교나 단위학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나 학교, 교수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내용 선정에 있어서 학습주도권에 대한 학습자의 절대적인 권한은 인정될 수 없으며 단지 수준별 한계에 따른 학습권은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도 학습내용 선정에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이 학습자의 요구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참 고 문 헌

- 구정화(1997). 청소년기의 소비습관 제대로 습득해야 사회 건강해져. *소비자시대*, 3월호, 27~33에서 전문가 의견.
- 권나원(2001). 학습자중심교육의 성격.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보*, 창간호(2001.2), 29~40.
- 김형석(2001). 학습자중심의 교과교육을 위한 철학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보*, 창간호(2001.2), 1~27.
- 김나연·이기춘(2001). 청소년 소비자의 동조적 상표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캐주얼 의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53~269.
- 김성태(1984).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 섬유저널(1995). 특집 '떠오르는 소비자 슈퍼 주니어를 주목하라.' 9월호, 108~161.
- 김현숙·최선형(2002). Y세대의 힙합패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9/10), 1320~1330.
-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4~145.
- 심은희·손원교(2001). 중학교 가정과 의생활영역의 협동학습 지도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3(1), 55~72.
- 양용철(2000). *교육마당* 21. 교수·학습환경 설계. 교

- 육부.
- 이경화·이혜영(2002).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의복구성 분야 내용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8), 1274~1285.
- 이돈희(1999). 왜 열린교육이어야 하는가,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 *교육철학회*, '99 교육철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9~46.
- 이지인·김용숙(2001). 중·고등학생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의류선물구매행동.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지*, 13(1), 13~24.
- 이춘식(2001). 기술·가정 교과서와 기술과 교육의 동향 및 교수-학습, 평가. *교육광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39.
- 이화자(1994). 신세대 시장의 마케팅적 의의와 광고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이옥이(2000). 중학생자의 수준별 분단 수업을 통한 영양 교육. *중등교육연구*, 제46집, 235~251.
- 정미경(2001). 의생활교육의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모형 적용이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5(9), 1563~1570.
- 조필교·김기경(2000). 기술·가정 교과의 수준별 모듈 수업 사례연구. *중등교육연구*, 제46집, 223~233.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기술·가정 교과의 의생활영역의 이론과 실기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의생활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구지역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응답율은 78.9%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영역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실기 위주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반면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론 위주의 학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2. 의생활영역에 대한 여고생들의 학습 요구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비교적 비슷하게 원하고 있었으며, 수행평가로 실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면 실기 수업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학습자의 학습희망에 따라 기술·가정교과의 의생활영역의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복의 소재', '체형에 맞는 의복의 착용 방법', '의복의 디자인', '의복의 합리적인 구입과 선택', 그리고 '의복의 제작 과정'이었다. 이들 내용에 대해서 교수자는 심화선택교과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선택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나마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